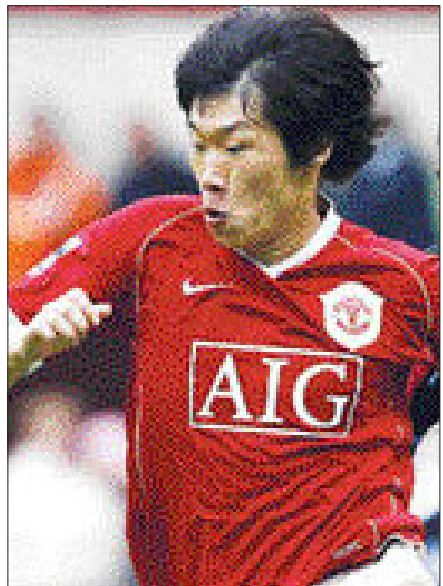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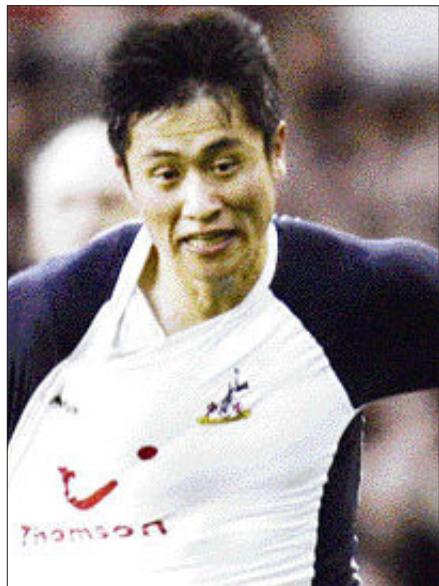


물살 가르며 힘찬 질주

17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천에서 열린 제22회 전국 시·도대학 조정대회에서 참가 선수들이 힘차게 노를 저으며 질주하고 있다. 대한조정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32개팀 500여명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18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박지성)



(이영표)

# “올 시즌 지켜봐주세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내일 개막

박지성·이영표·설기현 선전 다짐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무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19일(이하 한국시간) 2006~2007 시즌에 돌입한다.

20개 클럽이 격돌하는 프리미어리그는 내년 5월13일까지 9개월여 대장정에 들어갈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팀당 38경기를 소화한다.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영표(토트넘)에 이어 설기현(레딩 FC)의 입성으로 프리미어리그를 향한 국내 팬들의 관심은 한층 더 높아졌다.

태국 3인방의 활약 외에도 리그 3연패를 노리는 '로만 제국' 첼시의 수성 전선에 전통 명가 맨유와 리버풀이 강력한 도전장을 던진 전체 리그 판도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태국 3인방 '기선을 잡아라'  
프리미어리가 3호 설기현이 19일 밤 11시 미들즈버러와 홈 경기에 가장 먼저 출격한다. 이어 이영표가 20일 새벽 1시15분 볼튼과 원정 경기에, 박지성이 같은 날 밤 9시30분 풀햄과 홈 경기에 차례로 나선다.

설기현은 BBC 인터넷판이 선정한 '주목할만한 이적생 10인'에 이름을 올렸을 만큼

현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다. 연봉 40%가 인상돼 50억원대 고액 연봉자 대열에 오르고 20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한 박지성은 변함없이 맨유의 허리에서 '엔진'을 가동해야 해야 한다.

이에반해 지난 시즌 토트넘의 불발이 왼쪽 윙백으로 거의 결장없이 출전한 이영표는 카메룬 출신의 왼쪽 윙백 요원 아소 에코토의 영입으로 인해 오른쪽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의외로 시즌 초반 어려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맨유·리버풀, 첼시 독주 지지할까  
잉글랜드 축구 베테랑들은 이번 시즌에도 첼시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고 있다.

맨유와 리버풀이 두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상황.

첼시는 정규리그 개막 직전 열린 전초전 격인 FA 커뮤니티 실드에서 지난 시즌 FA컵 우승팀 리버풀에 일격을 얻어맞았지만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

또 상대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뚫는 스투페스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한국은 전반 4차례, 후반 6차례 등 무려 10차례 오프사이드 함정에 빠져 공격의 맥이 끊겼다.

결과적으로 미드필드에서 수비 뒷공간으로 정교한 스투페스

## ■ 베어백호, 이란전 앞두고 풀어야 할 숙제들

# 측면 돌파 짧은 패스 볼 컨트롤 '산넘어 산'

베어백호(號)가 대만과 2007 아시안컵 예선 2차전 원정경기에서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했지만 전력 완성도에서는 여전히 짙은 구석을 남겼다.

핌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44위로 아시아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대만을 맞아 스코어로는 3-0 완승을 거뒀지만 내용면에서는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선보이지 못했다.

대만전을 대비한 소집 훈련에서 베어백 감독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진행한 포지셔널 면담을 통해 전수했던 '베어백식 전술'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은 셈이다.

물론 무더위와 열악한 그라운드 상태 등이 복병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는데도 공격의 실마리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해 답답한 흐름이 계속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대만 원정에 선수단장으로 동행한 이영무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짧은 패스 연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볼 컨트롤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훈련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준비해온 측면 돌파가 문제였다.

오른쪽에서는 이천수(울산)와 김정우(나고야)가 활발하게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수비를 흔들었지만 안정환이 나선 왼쪽 측면은 거의 돌파를 볼 수 없었다.

더구나 간혹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로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졌고 여타 기회가 나타더라도 골 결정력 부족으로 경기 초반 득점에 실패했다.

또 상대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뚫는 스투페스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한국은 전반 4차례, 후반 6차례 등 무려 10차례 오프사이드 함정에 빠져 공격의 맥이 끊겼다.

결과적으로 미드필드에서 수비 뒷공간으로 정교한 스투페스



를 찢어줄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의 존재가 절실한 한 관이었다.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을 특점으로 연결하는 세트피스의 완성도도 아직 부족했다.

베어백 감독은 대만전을 앞두고 8가지의 세트피스 상황도를 만들어 라커룸에 붙여 놓고 선수들에게 주입시켰지만 실전에서 코너킥을 9개나 얻어냈으면서도 단 한차례도 골로 연결하지 못했다.

한편 한국대표팀은 다음달 2일 아시안컵 예선 3차전 이란과 경기에는 대만전에서 빠졌던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영표(토트넘 핫스퍼), 설기현(레딩FC), 차두리(마인츠05), 김동진, 이호(이상 제니트 샤프트페테르부르크), 조재진(시미즈) 등 해외파를 대거 합류시킬 전망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 기록으로 본 K리그 올스타전

# 김병지 11회출전 최다 이동국 8회...통산 9골

'김병지 올스타전 11회 출전, 이동국 올스타전 통산 9골'

지난 1991년 시작해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프로축구 K-리그 올스타전이 20일 오후 6시 인천 문학월드컵경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2006 삼성하우젠 K-리그 올스타전'은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기록들을 쏟아냈다. 지난 92년 데뷔한 김병지(서울)는 올해 감독추천으로 올스타전 멤버에 이름을 올리면서 자신의 11번째 올스타전 출전기록을 세웠다.

지난 1995년 첫 올스타전 출전을 이끈 김병지는 이후 11년간 올스타전에 빠짐없이 출전하면서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루키, 올스타전을 뒤흔다=K-리그 신인이 올스타에 뽑히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다. 지난 1995년 전남 드래곤즈 유니폼을 입고 데뷔 첫해에 무려 15골을 터뜨려 화려하게 K-리그에 등장했던 노상래는 올스타전에서도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당당히 올스타전 MVP에 뽑혔다.

이어 지난 1998년 올스타전에서는 이동국이 2골을 몰아쳐 '신인 MVP'의 뒤를 이었고, 지난해에는 '축구전제'란 별명으로 화려하게 K-리그에 데뷔한 박주영이 고참들을 몰리치고 MVP를 차지했다.

▲내가 최고 골잡이= '미스터 올스타'라는 별명답게 이동국은 통산 8차례 올스타전에 나서 무려 9골 3도움의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지난 1998년 첫 올스타전 출전에 2골을 쏘아 올린 이동국은 6년 연속으로 올스타전에 골을 터뜨렸고, 2004년 잠시 골 사냥을 멈춘 이동국은 지난해 올스타전에서 1골을 보태면서 2위 김은중(3골 2도움)과 격차를 더욱 벌렸다.

▲올스타전 최다 출전기록=단연 김병지(11회)가 선두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올해 부상으로 K-리그에 제대로 나서지 못한 이동국(포항)과 FC 서울에서 2위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김은중이 나란히 8번씩 올스타에 뽑혀 그 뒤를 잇고 있다.

▲올스타전 감독 열전=올스타에 뽑히는 선수만큼이나 감독으로 선정되는 것도 최고의 영광중 하나다. 고재욱 감독은 지난 1992년을 시작으로 1997년과 1999년에 올스타전 사령탑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올스타전 최다 감독에 올랐다.

그 뒤를 이어 김호 감독(98년, 99년, 2001년), 김정남 감독(91년, 2002년, 2003년), 차범근 감독(92년, 2005년, 2006년)이 나란히 3차례씩 올스타전 감독에 이름을 올렸다.

또 수원 삼성 치병근 감독과 전남 드래곤즈 허정무 감독은 2년 연속 올스타전 감독으로 뽑혀 자존심을 건 라이벌전을 펼치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지사배 국제친선축구 24일 개막

강진군종합운동장·열전 6일

中·日·베트남 등 7개국 참가

제1회 한국중등(U-15)축구연맹회장배 전남도지사배 국제친선축구 대회가 오는 24일부터 6일간 강진군 종합운동장과 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베

트남, 태국, 라오스, 싱가포르 7개국에서 15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8개팀이 참가하며, 조별리그 및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국제친선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중국과 일본 대표팀은 국가대표급 수준의 우수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우승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 한국, 아시안컵축구 B조 선두

이란과 시리아가 2007 아시안컵축구대회 B조 예선에서 비겨 한국이 조 선두로 올라섰다.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한 이란은 17일(이하 한국시간)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끝난 예선 2차전 홈 경기에서 자바드 네쿠남이 후반 26분 선제골을 넣었지만 종료 2분을 남기고 조야드 차보에게 동점골을 내줘 중동의 북부 시리아와 1-1로 비겼다.

첫 경기에서 대만을 4-0으로 대파한 이란은 이로써 1승1무(승점 4)를 기록했다.

전날 타이베이 원정 경기에서 대만을 3-0으로 꺾은 한국은 2연승(승점 6)으로 이란에 앞서 조 1위로 올라섰다. 시리아는 1승1무1패(승점 4)를 기록했고 대만은 3패가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7위로 아시아권에서 순위가 가장 높은 호주에서 쿠웨이트를 2-0으로 꺾고 가장 먼저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했다.

일본은 예선과 홈 경기에서 후반 25분 아베 유키가 알렉산드로 산토스의 코너킥을 헤딩으로 꽂아 선제골을 뽑고 신에 스트라이커 사토 히사토가 추가골을 뽑아 2-0 승리를 거뒀다.

같은 조 사우디아라비아는 인도를 3-0으로 눌렀다. 중국은 후반 인저리타임 사오 자이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약체 싱가포르를 1-0으로 누르고 간신히 B조 선두로 올라섰다.